

내재적 · 친사회적 동기와 삶 만족도의 관계에서 그릿(Grit)과 친사회적 행동의 매개효과

류 영 주

양 수 진[†]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내재적 · 친사회적 동기가 삶 만족도를 예측하는지 확인하고, 그릿과 친사회적 행동의 매개효과가 나타나는지 구조방정식을 이용하여 검증해보고자 하였다. 20대 성인초기 남녀 443명을 대상으로 설문연구를 진행하였고, 그 중 연구 대상에 적합하고 성실하게 응답한 356명(남 153명, 여 203명)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검증 결과, 그릿은 내재적 · 친사회적 동기와 삶 만족도를 단순매개하였고, 친사회적 행동은 친사회적 동기와 삶 만족도의 관계만을 유의하게 매개하였다. 그릿과 친사회적 행동의 이중매개효과는 두 동기 유형에서 모두 유의하게 나타나 동기와 행동을 이어주는 그릿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20대의 삶에 대한 만족도와 관련하여 개인 내적 동기와 친사회적 행동을 고려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하며, 그릿을 통해 개인이 가진 동기 유형에 상관없이 친사회적 행동을 증진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발달적 관점에서 20대의 삶 만족도를 증진시키기 위해 고려해야 할 점과, 주관적 안녕감을 예측하는 새로운 변인으로서 그릿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요어 : 내재적 동기, 친사회적 동기, 그릿, 친사회적 행동, 삶 만족도

[†] 교신저자 : 양수진,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0376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52
E-mail: sujinyang@ewha.ac.kr

행복은 단순히 개인적 만족에 그치지 않고, 폭넓은 영향력을 가진다. 행복은 신체적·정신적 건강, 결혼, 고용, 이후의 수입 등을 유의하게 예측하며(Binder & Coad, 2010; De Neve & Oswald, 2012), 가까운 사회적 관계에서 전염된다(Fowler & Christakis, 2008).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경제적 성장, 높은 학력, 사회경제적 지위의 획득 등 객관적인 성공을 좇으면서 행복이나 삶 만족도 등 주관적 요소들은 비교적 관심을 받지 못했다. 특히 최근 우리나라의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했을 때 성인초기, 그 중에서도 20대의 안녕감이 크게 저해되고 있다. 20대의 실업률은 역대 최대 수준으로(통계청, 2017.09.13), 청년들은 취업 준비를 위해 연애, 결혼, 출산에 이어 인간관계, 꿈과 희망 등 끝없이 포기하는 'N포세대'로 불린다. 이는 이 시기의 발달과업인 친밀성 달성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발달적 관점에서 성인 초기의 만족도를 예측하는 경로를 제안하고, 이를 위해 내재적·친사회적 동기, 그릿(Grit), 친사회적 행동과 삶 만족도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행복에 대한 연구는 긍정심리학적 관점에서 크게 증가하였다. 긍정심리학은 부정적 요소에 집중하여 그 원인을 연구해온 선행 연구와 달리, 긍정적 요소를 예측하는 변인 역시 연구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다. 행복은 주관적 안녕감의 정서적 요소로, 전반적으로 삶에 대한 긍정적 정서가 부정적 정서에 비해 우세함을 의미한다(Diener, 1984). 이는 안녕감에 대한 인지적 판단을 의미하는 삶 만족도와 높은 상관을 보인다(Diener, Emmons, Larsen, & Griffin, 1985). 삶 만족도와 행복이 구별된 변인인지에 대해서는 상반된 의견이 존재하지만(Campbell, Converse, & Rodgers, 1976; Veenhoven, 1991), 본

연구에서는 삶 만족도가 행복을 충분히 측정한다는 선행 연구의 논지와(DiTella, MacCulloch, & Oswald, 2001), 삶 만족도가 행복에 비해 국가, 연령 등 주변 조건의 영향을 덜 받는 측정치인 점을 참고하여 삶 만족도를 변인으로 선정하였다(Gundelach & Kreiner, 2004).

선행 한국 연구에서는 성인의 삶 만족도를 예측하는 변인으로 애착, 소명 의식, 스트레스 등을 제안하였다(장미애, 양난미, 2015; 정우희, 김혜원, 2017). 그러나 여전히 주관적 안녕감에 이르는 복잡한 매커니즘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자기결정성 이론에 따르면 자율성(autonomy), 유능성(competence), 관계성(relatedness)의 추구가 기본심리욕구를 충족시킴으로써 안녕감으로 이어진다(Ryan & Deci, 2000). 이 중에서 자율성이 가장 핵심적인 변인이기 때문에, 자율성이 반영된 정도에 따라 동기를 세분화한다. 이는 기존에 동기를 활동 자체에 대한 선호(내적 동기)나 외부 보상 혹은 벌에 의한 선택(외적 동기)으로 구분한 것과 다르게, 타인의 통제가 아닌 개인의 의지에 따라 선택하는 자기결정성을 동기의 핵심 특성으로 보았다. 자기결정성의 정도에 따라 동기는 무동기(amotivation), 외적 조절(external regulation), 부과된 조절(introjected regulation), 확인된 조절(identified regulation), 통합된 조절(integrated regulation), 내적 조절(intrinsic regulation)로 나뉜다(Ryan & Deci, 2000). 이 중 내적 조절, 통합된 조절, 확인된 조절의 경우 활동에 내재한 가치를 인식하고 그 가치가 개인 내적으로 통합되었기에 자율적 동기(autonomous motivation)로 분류된다. 외적 조절, 부과된 조절은 외부에 의해서 특정 방향으로 행동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기 때문에 통제된 동기(controlled

motivation)에 속한다(Deci & Ryan, 2008).

자율적 동기는 통제된 동기와 비교했을 때 다양한 긍정적 결과를 더 잘 예측하였다. 자율적 동기를 가지고 타인을 도운 사람들은 더 높은 자존감과 주관적 안녕감을 경험하였다(Weinstein & Ryan, 2010). 반면 통제된 동기로 도움 행동을 수행한 집단은 도움 행동을 수행하지 않은 집단보다도 낮은 자존감과 주관적 안녕감을 보고하였다. 또한 목표 달성에 대한 예측에서도 두 동기는 차이를 보였다(Koestner, Otis, Powers, Pelletier, & Gagnon, 2008). 자율적 동기 집단은 목표 달성을 위해 더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사전에 설정한 목표 수준에 유의하게 많이 도달하였다. 그러나 통제된 동기 집단은 목표 달성 수준과 유의한 관련을 보이지 않았다.

자율적 동기의 하위 유형으로 내재적 동기와 친사회적 동기가 있다. 내재적 동기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동기로, 외적 보상보다는 활동 자체에 내재된 흥미와 즐거움으로 발생하는 동기이다(Ryan & Deci, 2000). 따라서 자기결정성 분류에 의하면 내적 조절 유형에 속한다(Kehr, 2004). 반면 친사회적 동기란 다른 사람이나 집단의 이익에 관심을 갖는 동기로, 타인의 안녕감에 기여하고자 하는 동기이다(Grant, 2008). 내재적 동기에 비해 목표 달성에서 자기조절을 더 요구하지만, 활동의 가치를 인식하기 때문에 확인된 조절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Grant, 2008; Ryan & Connell, 1989). 친사회적 동기는 타인 지향적인 동기라는 측면에서 자기의 흥미에 초점을 맞추는 내재적 동기와 차이를 보인다(Grant & Berg, 2012). 그러나 두 동기는 상호배타적이지 않으며, 두 동기가 동시에 높게 나타날 수 있다(De Dreu & Nauta, 2009).

내재적 동기와 친사회적 동기는 모두 주관적 안녕감을 예측하는 변인이다(Ryan & Deci, 2001). 이는 두 유형 모두 기본적으로 자기결정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Cantor와 Sanderson(2003)은 내재적으로 가치 있고 자율적으로 선택된 목표를 추구할 때 만족스러운 삶을 영위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두 동기는 모두 이 조건을 충족한다. 자율적 동기는 심리적 건강이나 안녕감 등 긍정적인 요인을 유의하게 예측하였으며(Deci & Ryan, 2008), 이 관계는 다양한 국가에서 유의미했다(Lachapelle et al., 2005). 그러나 내재적 동기와 친사회적 동기는 서로 다른 경로를 통해 삶 만족도로 이어진다. Ryan 등(2008)에 따르면 자기결정성 동기는 쾌락주의적(hedonic)인 접근과 자기실현적(eudaimonic) 접근을 통해 안녕감을 예측한다. 쾌락주의적 행복이 긍정 정서나 고통의 부재와 같은 결과적 요소에 집중하는 자기중심적 행복인 반면, 자기실현적 행복은 삶의 과정에 더 집중하여 삶의 의미, 지역사회 기여, 의미 있는 관계 등 타인과의 '더 나은 삶'을 추구한다. 이때 내재적 동기는 쾌락주의와, 친사회적 동기는 자기실현주의와 연관이 있다. 삶 만족도라는 동일한 결과로 이어지더라도, 두 동기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구분하여 분석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동기가 삶 만족도로 발현되기 위해서는 동기에 걸맞은 행동이 드러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에 따라 친사회적 행동을 매개 변인으로 제안한다. 친사회적 행동은 20대의 발달과업인 친밀성과 관련이 높을 뿐만 아니라, 행동을 유발하는 선행 요인이라는 점에서 내재적 · 친사회적 동기와의 연결성이 높은 변인이다(Baston, 1987; Weinstein & Ryan, 2010).

Erikson(1963)은 각 연령에 따른 발달과업이

존재한다고 제안하였다. 시기 별 발달과업이 충족되지 못할 경우 건강한 성격 발달이 어려워지며, 이후의 발달 단계에도 영향을 준다. 영아기부터 노년기까지 8개의 발달 단계 중, 성인초기의 발달과업은 친밀성이며, 친밀성의 획득 실패는 고립으로 이어진다. Havighurst (1952)의 분류를 기반으로 한국인의 성인초기 발달과업을 보고한 장휘숙(2008)의 연구에서도 사회적 관계의 형성은 성인초기의 핵심적 과업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구직난으로 인해 효율적인 시간 관리를 위해 혼자 공부와 식사 등의 일상생활을 하는 '나홀로족'의 증가는 사회적 관계 형성 기회가 감소하는 것을 보여준다(한국지역정보개발원, 2016). 즉, 친밀성 달성을 어렵게 하는 사회적 상황이 20대의 발달 과업 충족을 방해하며, 이로 인해 삶 만족도의 저하를 야기할 수 있다.

행복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관계'이다. 친밀성 달성이라는 발달과업을 가진 20대에게 있어서 좋은 관계는 특히 중요할 것이다. Diener와 Seligman(2002)이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서, 행복한 집단과 행복하지 않은 집단의 차이는 좋은 사회적 관계의 유무였다. 이와 같이 친밀성은 행복의 핵심 요소인데, 친밀성과 관련 있는 변인으로 친사회적 행동이 있다. 친사회적 행동이란, 타인의 이득을 위한 행동을 의미하며, 도움(helping), 위로(comforting), 나눔(sharing), 협력(cooperating) 행동 등 넓은 범주를 포함한다(Baston & Powell, 2003). 친사회적 행동은 높은 우정의 질을 예측하며(Berndt, 2002), 결혼과 같이 안정적인 사회적 관계의 존재와도 유의한 관계가 있다(Dyer, 1986).

사회적 관계가 행복을 예측하듯, 친사회적 행동 역시 행복을 직접 예측한다(Aknin, Norton,

& Dunn, 2009). 또한, 친사회적 행동을 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 높은 안녕감을 보고하기도 했다(Wheeler, Gorey, & Greenblatt, 1998). 136개국을 대상으로 설문과 실험을 진행하였을 때, 기부 행동이 삶 만족도를 유의하게 예측하였다는 연구는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현상임을 지지한다(Aknin et al., 2013).

자기결정성 이론의 관점에서, 자율적 동기는 친사회적 행동을 유의하게 예측하였다(Gagné, 2003). 통제된 동기 또한 친사회적 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데, 대학 입학이나 취업을 위한 봉사활동이 그 예이다. 그러나, 강압에 의해 수행된 친사회적 행동은 삶 만족도를 예측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자율적 동기와 차이가 있다. Weinstein과 Ryan(2010)에 의하면 자율적 동기에 의한 도움 행동은 도움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의 안녕감을 증진시켰다. 반면 통제적 동기에 의해 도움을 준 사람들은 자율적 동기로 도움을 준 집단보다 유의하게 낮은 안녕감을 보고했으며, 심지어 도움 행동을 수행하지 않은 집단과 비교했을 때에도 더 낮았다. 즉, 자기결정성은 친사회적 행동과 그 행동에 대한 결과에도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다. 내재적 동기와 친사회적 동기는 모두 자율적 동기이기 때문에 친사회적 행동을 유의하게 예측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선행 연구에서 자율적 동기의 하위 요인에 따라 관계성을 살펴본 경우는 드물었다. Grant(2008)의 연구에서 내재적 동기와 친사회적 동기가 상호작용하여 소방관의 업무행동을 유의하게 예측하였으나, 일상적으로 나타나는 친사회적 행동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내재적 동기와 친사회적 동기가 20대 성인 초기에서 일반적으로 접할 수 있는 친사회적 행동을 예측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대체로 동기는 행동을 예측하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도와주고자 하는 의도가 있어도 다양한 상황적 요인에 의해 이는 행동으로 드러날 수도, 아닐 수도 있다(Penner, Dovidio, Piliavin, & Schroeder, 2005). 이때 동기와 행동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그릿(Grit)이 수행할 수 있다. 그릿은 최근 대두된 개념으로, 역경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목표를 꾸준히 지속시켜나가는 힘을 의미한다(Duckworth et al., 2007). 그릿은 열정(passion)과 인내(perseverance)의 2개 구성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열정은 동일 분야의 흥미를 오랫동안 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인내는 역경을 맞이했을 때에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Eisenberg, Cumberland, Guthrie, Murphy와 Shepard(2005)에 의하면 청소년기에 비해서 성인 초기에 도덕 추론(moral reasoning) 능력은 증가하지만, 실제 도움 행동은 비슷하거나 오히려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자기효능감이 친사회적 행동의 선행 요인이었다(Caprara & Steca, 2005). 이를 함께 고려했을 때, 20대는 친사회적 행동을 수행하기 위한 인지적 판단은 가능하지만 효능감의 부족으로 행동을 실행하지 못할 수 있다. 또한 같은 사람, 같은 행동이어도 상황에 따라 수행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행동을 수행하기 위해 들여야 하는 노력, 상황의 심각성, 대상자와의 관계, 주변인의 수(Bennett, Banyard, & Garnhart, 2014; Fisher et al., 2011; Latané & Nida, 1981; von Borgstede & Biel, 2002) 등 여러 요인에 의해 행동 여부가 달라진다. 그릿은 자기효능감과 관련 있는 변인이면서, 역경에서도 지속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비인지적 능력이기 때문에 상황에 관계없이 친사회적 행동을 지속시키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이혜원, 탁정화,

이미란, 2017; Duckworth et al., 2007).

그릿은 그 자체로 친사회적 행동과 관련이 깊기도 하다. Duckworth(2016)에 의하면 그릿이 높은 사람들은 더 친사회적인 경향이 있다. 그릿의 발달 단계 중 하나인 ‘목적’은 특히 그 정의가 “타인의 안녕감에 기여하고자 하는 의도”(Duckworth, 2016, p.143)인 만큼 친사회적 특성을 많이 내포하는 요소이다. 친사회적인 사람들은 높은 그릿을 보이고, 이는 실제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것이다. Holbein, Hillygus, Gibson-Davis, Hill과 Lenard(2016)는 그릿이 학교 참여(school engagement)와 봉사활동을 유의하게 예측했음을 보고하였다. 또한 Hillygus, Holbein과 Snell(2016)에 의하면 청소년기의 그릿이 성인기의 투표행동을 예측하였는데, 이는 인지 기술, 성격, 정치적 관심 등 개인적, 맥락적 요인을 통제하였을 때에도 유의미했다. 이러한 결과는 그릿이 높은 사람들이 투표를 방해하는 요소를 더 잘 극복하고, 정치적 효능감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제시되는데, 그릿이 상황이나 의도와 관계없이 도덕적인 행동을 지속하는 성격 요인이라고 보고한 Fleson, Furr, Jayawickreme, Meindl과 Helzer(2014)의 설명과도 일치한다.

그릿은 동기와 삶 만족도의 관계 역시 매개한다. Duckworth(2016)에 의하면 그릿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흥미(interest)’, ‘연습(practice)’, ‘목적(purpose)’, ‘희망(hope)’이 존재한다. 각 요인은 사람마다 다른 시기에 발달하며, 발달 순서도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이 중 ‘흥미’와 ‘목적’은 각각 내재적 동기, 친사회적 동기와 관련이 있다. 내재적 동기는 활동 자체의 흥미로 인해 발생하는 동기로, 활동의 지속성을 유의하게 예측한다(Pelletier, Fortier, Vallerand, & Briere, 2001; Vallerand & Blssonnette,

1992; Walker, Greene, & Mansell, 2006). Changlek과 Palanukulwong(2015)은 내재적 동기와 그릿 간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고하였으며, 달리기 동호회(running club) 회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Vakil(2014)의 연구에서 달리기 자체에 대한 흥미는 그릿을 정적으로 유의하게 예측하였다. 반면 ‘목적’은 친사회적 의미(meaning)를 찾는 것이다. 어떤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이유에 ‘그 목표를 통해 다른 사람들을 돕고 싶어서’, ‘이 사회에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서’ 등 타인 지향적인 요소가 포함될 때 사람들은 더 높은 그릿을 보인다(Duckworth, 2016). 친사회적 동기는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하위 목표를 계획할 수 있게 하며, 친사회적 동기가 높은 사람은 단순히 목표지향적인 사람보다 어려운 상황에서 더 지속하는 경향을 보였다(McKnight & Kashdan, 2009). Scharneck(2017)은 자율성을 지지하는(autonomy-supportive) 훈련이 운동선수들의 자율적 동기를 매개하여 그릿을 예측한다고 하였다. 이는 자율적 동기가 그릿의 선행 요인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자율적 동기는 지속성을 증진시켜 긍정적인 행동적 결과로 이어진다(Deci & Ryan, 2008). Silva 등(2011)의 연구에서 운동에 대한 자율적 동기가 높은 사람들은 더 꾸준히 운동을 지속하였고, 3년 뒤의 체중 감소도 유의하게 예측하였다. 자율적 동기를 가진 학생들은 통제된 동기 집단보다 더 오래 지속했고, 더 높은 성적과 만족도를 보고하였다(Niemiec & Ryan, 2009).

선행연구에서 그릿은 삶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예측하는 변인이었다(Singh & Jha, 2008). Jin과 Kim(2017)의 연구에서는 그릿이 삶 만족도에 대한 직접 효과는 없으나 자율적 동기를 매개로 하여 간접효과는 유의미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Duckworth, Quinn과 Seligman (2009)의 연구에서 그릿은 삶 만족도를 직접적으로 예측하였다. 이는 대상자의 특성 차이로 인한 결과일 수 있는데, Jin과 Kim(2017)은 한국 대학생, Singh과 Jha(2008)는 인도 학생을, Duckworth 등(2009)은 선생님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는 차이가 있다. 이외에도 그릿이 어떻게 긍정적 삶의 요소를 예측하는지 그 매커니즘을 밝히기 위한 연구가 다양하지만(박선의, 2017; Pennings, Law, Green, & Anestis, 2015), 그릿과 삶 만족도의 관계에 대해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리하면, 본 연구에서는 성인 초기(20대)의 삶 만족도를 예측하는 변인으로 내재적 동기와 친사회적 동기를 제안하고, 동기와 이 시기의 발달과업 달성에 필수적 요인인 친사회적 행동을 잇는 그릿의 역할을 살펴보고자 한다. 두 유형의 동기는 모두 그릿을 발달시키는 기반이 되며, 이렇게 발달한 그릿은 친사회적 행동을 증가시킴으로써 개인의 만족도를 예측한다. 그림 1을 통해 연구모형을 제시한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연구 문제는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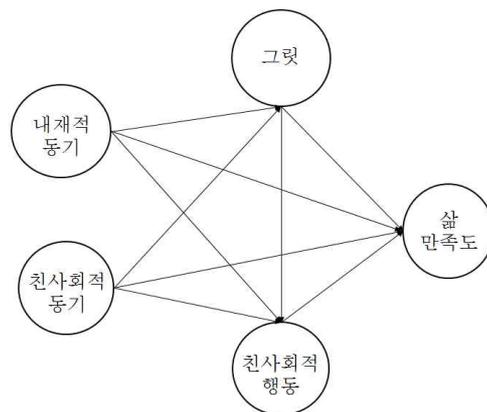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음과 같다.

첫째, 내재적 · 친사회적 동기가 삶 만족도를 예측하는가?

둘째, 그릿과 친사회적 행동은 각각 내재적 · 친사회적 동기와 삶 만족도의 관계를 단순매개하는가?

셋째, 내재적 · 친사회적 동기와 삶 만족도의 관계에서 그릿과 친사회적 행동의 이중매개효과가 있는가?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20대(만 20-29세) 성인초기 남녀 443명이었다. 이 중 대상 연령에 적합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87명의 자료가 제외되었다. 최종적으로 356명의 자료가 분석되었고, 이 중 남성은 153명(43.0%), 여성은 203명(57.0%)이었다. 이들의 평균 연령은 23.9세($SD=2.29$)였다. 최종 학력은 대학교 재학(194명, 54.5%)인 경우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대학교 졸업(85명, 23.9%)과 석사 재학(52명, 14.6%)이 높게 보고되었다. 가정 월수입은 300만원-500만원 미만(101명, 28.4%), 100만원-300만원 미만(81명, 22.8%), 500만원-700만원 미만(74명, 20.8%)이 가장 많았다. 종교는 무교(215, 60.4%), 기독교(78명, 21.9%), 천주교(40명, 11.2%), 불교(23명, 6.5%) 순으로 보고되었다.

측정도구

자기 · 친사회적 동기

Ryan과 Connell(1989)의 자기 - 조절(self-

regulation) 척도를 기반으로 Grant(2008)가 수정한 동기 척도를 이용해 측정하였다. Grant(2008)의 연구에서는 내재적 동기(intrinsic motivation)와 친사회적 동기(prosocial motivation)의 두 가지로 측정되었다. 이 척도는 8문항, 5점 리커트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이루어져 있으며, 내재적 동기와 친사회적 동기를 각각 4문항으로 측정한다. 원 척도를 번역-역번역 절차를 시행하여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한국어와 영어를 모두 모국어 수준으로 구사하는 심리학 전공자가 한국어로 번안하였고, 한국어와 영어에 대한 이중언어 사용자가 한국어 문항을 역번역하였으며, 심리학 전공자 2명과 이중언어자가 기존 문항과 역번역된 문항을 평정하여 최종적으로 확정하였다. 척도는 '일을 하는 이유', 혹은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그 일을 하고 싶은 이유'를 질문하고, 각 문항에 대해 응답자가 자신과 얼마나 비슷한지 평정하도록 한다. 내재적 동기의 예시로는 '일이 재미있기 때문에', '일이 매력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등이 있고, 친사회적 동기의 예시로는 '일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돕고 싶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싶기 때문에'가 있다. 본 연구에서 내적일치도는 친사회적 동기는 .90, 내재적 동기는 .71로 나타났다.

그릿

Duckworth 등(2007)의 척도를 집단주의 문화에 맞게 수정한 Datu, Yeun과 Chen(2017)의 삼원 그릿 척도(Triadic Grit Scale)를 사용하였다. 원 척도를 번역-역번역 절차를 통해 번안하고,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및 법칙적 망조직(nomological network) 분석을 통해

타당화한 김정은, 류영주, 최효선과 양수진(2017)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기존 그릿의 2요인인 열정, 인내에 상황에 대한 적응성(adaptability to situations)을 추가하여 3요인으로 그릿을 측정한다. 그동안 Duckworth 등(2007)의 척도를 여러 나라에서 타당화하고자 노력했는데, 동양 문화권에서는 서양 문화권과 다른 요인 구조가 나타났다(Datu et al., 2017). 한국 연구에서도 이수란과 손영우(2013)가 번안한 Duckworth 등(2007)의 원 척도가 2요인이 아닌 3요인 구조로 나타난 바가 있으며(이수경, 2016), 본 연구에서도 탐색적 요인 분석 결과 3요인 구조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Datu 등(2017)의 삼원 그릿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10문항, 5점 리커트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어 있다. 열정의 예로는 '나는 몇 개월마다 새로운 목표나 관심사에 흥미를 갖게 된다(역)', 인내의 예로는 '나는 부지런하다가 있다. 새로 추가된 적응성의 4개 문항으로 '나는 내 삶에 찾아오는 새로운 기회들을 감사히 여긴다', '나는 삶의 변화하는 상황에 맞춰 대처할 수 있다', '계획이나 전략을 바꾸는 것은 내 삶의 장기 목표를 성취하는 데 중요하다', '삶의 변화는 내가 더 열심히 일하도록 동기부여 한다'가 있다. 본 연구에서 내적일치도는 열정 .56, 인내 .65, 적응성 .65, 전체 척도는 .71로 나타났다.

친사회적 행동

친사회적 행동은 Neilson, Padilla-Walker와 Holmes(2017)가 개발한 Multidimensional measure of prosocial behavior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기존 친사회적 행동에서 남녀 차이가 나타난

이유는 척도가 남성들이 자주 수행하는 친사회적 행동을 반영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는 전제 하에 개발되었다. 방어(Defending), 정서적 도움(Emotional Helping), 포용(Inclusion), 신체적 도움(Physical Helping), 공유(Sharing)의 5개 요인을 각각 4개 문항, 5점 리커트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여 총 20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원 척도를 앞서 언급한 것과 동일한 번역-역번역 절차를 거쳐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문항묶음을 통해 3개의 하위요인을 구성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내적일치도의 경우 친사회1은 .64, 친사회2는 .67, 친사회3은 .68이며, 전체 척도는 .86으로 나타났다.

삶 만족도

삶 만족도의 경우 삶의 만족 척도(Satisfaction With Life Scale: SWLS)를 이용해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Diener, Emmons, Larsen과 Griffin(1985)이 개발한 것을 Suh(1994)가 번안하였다. 5문항 리커트 7점 척도(1=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7=매우 동의한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로는 '나는 나의 삶에 만족한다', '다시 태어난다 해도, 나는 지금처럼 살아갈 것이다'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문항묶음을 통해 3개의 하위요인을 구성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내적일치도는 삶만족1은 .79, 삶만족2는 .77로 나타났다. 삶만족3은 단일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전체 척도의 내적일치도는 .88로 나타났다.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는 우선, SPSS 21.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척도의 내적일치도를 산출하고, 연구 대상의 인구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기

숏통계분석을 시행하였다. 또한, 연구 변인들 간의 상관을 알아보기 위한 상관분석을 시행하였다. 다음으로, Mplus 7.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을 분석하였다. 측정모형과 구조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 χ^2 값과 적합도 지수인 CFI(Comparative fit index),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SRMR(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을 고려하였다. CFI는 .90 이상인 경우 적합한 수준으로 여겨지며, RMSEA는 .05 이하일 경우 좋은 적합도를, 0.08 이하일 경우 괜찮은 적합도를 가리킨다(Browne & Cudeck, 1993). SRMR은 .05 이하, 혹은 .08 이하일 경우 좋은 적합도로 본다(Byrne, 2013; Hu & Bentler, 1999). 마지막으로, 자기 · 친사회적 동기와 삶 만족도의 관계에서 그릿과 친사회적 행동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방법을 사용하였다.

결 과

측정 변수들의 상관관계 및 기술통계

본 연구에서 사용된 주요 측정변인들의 상관분석 결과와 기술 통계치를 표 1에 제시하였다. 변수들은 모두 정규분포 가정을 충족하였다. 자료의 정규성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첨도의 절대값이 7 이하, 왜도의 절대값이 3 이하여야 한다(Kline, 2011).

상관계수를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모든 변인 간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p < .01$). 그러나 그릿의 하위요인 중 하나인 열정의 경우 유의하지 않은 관계가 다수 있었는데, 이는 문화

적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여겨진다. Datu 등(2016)에 의하면 집단주의 문화권에서는 소속된 집단의 목표에 맞춰 개인의 목표를 설정하는 경향이 있고, 따라서 서로 다른 집단에서 동일한 목표를 유지하는 것은 오히려 부적응적일 수 있다. 이런 면에서 목표의 지속성을 의미하는 열정 요인이 집단주의 문화에서는 설명력이 떨어진다. 실제로 열정은 긍정 정서나 삶 만족도 등 긍정적인 결과들을 예측하지 못하였다. 반면 인내는 이들 변인들을 유의하게 예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역시 집단주의 문화로 분류되는 만큼, 이와 유사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측정모형 검증

측정변수들이 각 잠재변수를 적절히 반영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측정모형의 확인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그림 2를 통해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측정모형의 적합도는 $\chi^2 = 294.359(df = 109, p < 0.001)$, CFI = 0.942, RMSEA = 0.069, SRMR = 0.048로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렴타당도와 변별타당도는 전반적으로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나타났다(측정변인의 요인부하량 = .59~.93, 잠재변인 간 상관 = .60 이하, $p < .001$). Stevens(1992)에 의하면 표본크기 0.40 이상의 요인부하량이 유의하며, Kline(2011)은 변인 간 상관이 .90이하일 때 변별타당도가 있다고 하였다. 다만 열정의 경우 요인부하량이 .26으로 다소 낮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이고 그릿의 중요한 구성요인인 점을 고려하여 모형에 그대로 포함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특정한 장기적 목표를 보유한다는 점, 즉 열정 요인은 그릿을 성실성(conscientiousness), 자기-통제(self-control)

표 1. 주요 변인들의 상관분석 결과 및 기술 통계치 (N=356)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 내재동기1	1																
2. 내재동기2	.64 ^{***}	1															
3. 내재동기3	.71 ^{***}	.70 ^{***}	1														
4. 내재동기4	.80 ^{***}	.69 ^{***}	.82 ^{***}	1													
5. 친사회동기1	.47 ^{***}	.36 ^{***}	.29 ^{***}	.36 ^{***}	1												
6. 친사회동기2	.40 ^{***}	.43 ^{***}	.34 ^{***}	.38 ^{***}	.64 ^{***}	1											
7. 친사회동기3	.30 ^{***}	.28 ^{***}	.28 ^{***}	.34 ^{***}	.48 ^{***}	.58 ^{***}	1										
8. 친사회동기4	.49 ^{***}	.50 ^{***}	.50 ^{***}	.50 ^{***}	.59 ^{***}	.60 ^{***}	.43 ^{***}	1									
9. 열정	.10	.17 ^{**}	.08	.08	.11 [*]	.10	-.07	.02	1								
10. 인내	.30 ^{***}	.23 ^{***}	.19 ^{***}	.24 ^{***}	.21 ^{***}	.20 ^{***}	.15 ^{***}	.16 ^{***}	.37 ^{***}	1							
11. 적응성	.35 ^{***}	.30 ^{***}	.25 ^{***}	.30 ^{***}	.26 ^{***}	.35 ^{***}	.21 ^{***}	.30 ^{***}	.08	.41 ^{***}	1						
12. 친사회1	.13 ^{**}	.10	.04	.11 [*]	.36 ^{***}	.30 ^{***}	.24 ^{***}	.24 ^{***}	.02	.12 ^{**}	.29 ^{***}	1					
13. 친사회2	.18 ^{**}	.16 ^{**}	.06	.13 [*]	.37 ^{***}	.41 ^{***}	.26 ^{***}	.28 ^{***}	.06	.21 ^{***}	.35 ^{***}	.70 ^{***}	1				
14. 친사회3	.20 ^{**}	.14 ^{**}	.10	.17 ^{**}	.26 ^{***}	.30 ^{***}	.20 ^{***}	.27 ^{***}	.05	.19 ^{**}	.42 ^{***}	.65 ^{***}	.68 ^{***}	1			
15. 삶만족1	.38 ^{***}	.29 ^{***}	.28 ^{***}	.29 ^{***}	.25 ^{***}	.24 ^{***}	.15 ^{***}	.25 ^{***}	.09	.24 ^{***}	.41 ^{***}	.22 ^{***}	.19 ^{**}	.17 ^{**}	1		
16. 삶만족2	.40 ^{***}	.31 ^{***}	.28 ^{***}	.33 ^{***}	.29 ^{***}	.25 ^{***}	.20 ^{***}	.20 ^{***}	.19 ^{**}	.40 ^{***}	.43 ^{***}	.24 ^{***}	.29 ^{***}	.23 ^{***}	.71 ^{***}	1	
17. 삶만족3	.31 ^{**}	.25 ^{**}	.20 ^{**}	.24 ^{**}	.27 ^{**}	.22 ^{**}	.14 ^{**}	.19 ^{**}	.18 ^{**}	.29 ^{**}	.34 ^{**}	.18 ^{**}	.20 ^{**}	.17 ^{**}	.62 ^{**}	.68 ^{**}	1
평균	3.45	3.80	3.70	3.62	3.12	3.36	2.82	3.78	2.64	3.33	3.76	3.62	3.50	3.67	4.50	4.14	3.91
표준편차	0.98	0.94	0.95	0.98	1.13	1.03	1.05	1.00	0.66	0.70	0.55	0.49	0.49	0.51	1.30	1.25	1.67
왜도	-.37	-.83	-.67	-.50	-.03	-.25	.20	-.76	.32	-.09	-.32	-.21	-.18	-.25	-.35	-.24	-.01
첨도	-.46	.45	.27	-.14	-.95	-.61	-.64	.28	-.05	-.53	-.08	.18	-.18	-.00	-.47	-.49	-.90

^{*} $p < .05$, ^{**} $p <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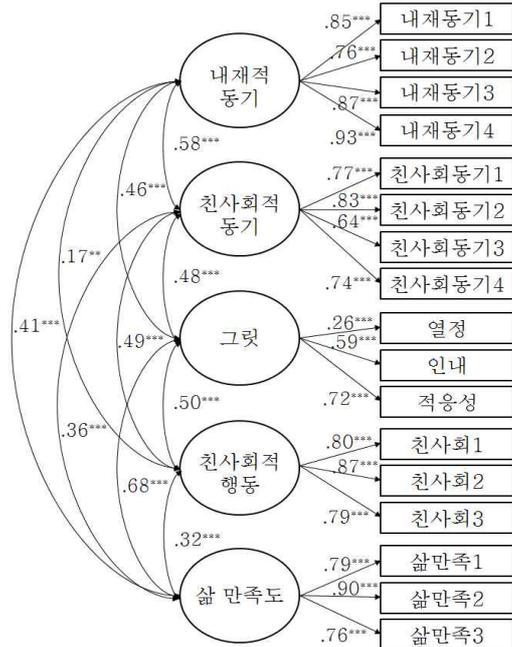


그림 2. 측정모형의 요인부하량 및 잠재변인 간 상관

등 유사한 변인과 구별하는 중요한 구인이다 (Duckworth & Gross, 2014; Duckworth et al., 2007). 또한 선행 연구에 의하면 집단주의 문화에서 열정 요인이 그릿과 낮은 관련성을 보였는데(Datu et al., 2016), 본 연구에서도 문화적 차이로 인해 비슷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구조모형 검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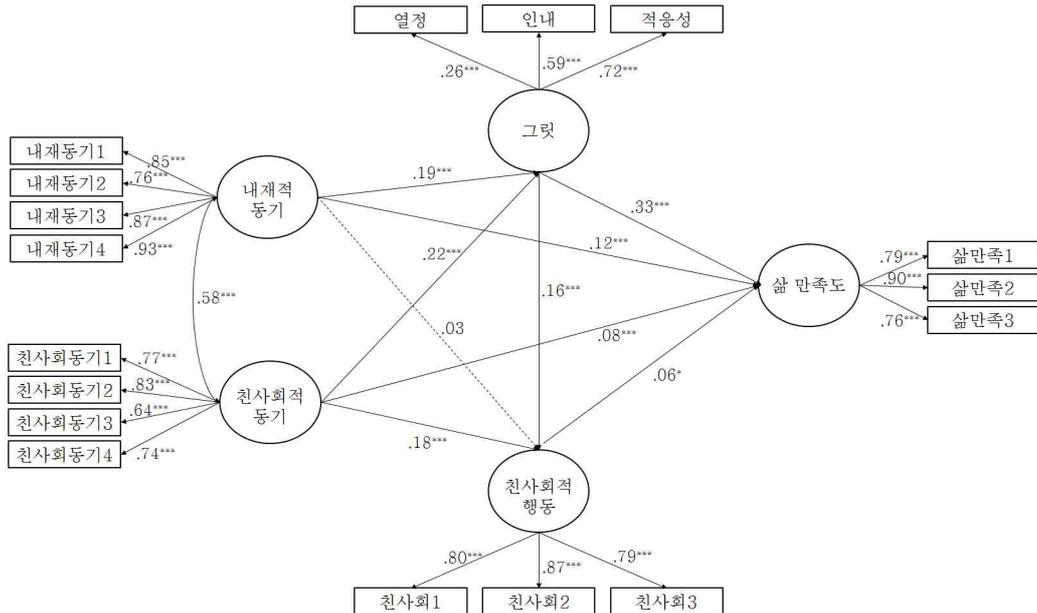
그릿과 친사회적 행동이 내재적 동기 · 친사회적 동기와 삶 만족도의 관계를 매개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연구모형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검정을 진행하였다. 연구모형에 대한 적합도를 확인한 결과, 전반적인 적합도는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chi^2=294.359(df=95, p<0.001)$, CFI=0.938, RMSEA=0.077, SRMR=0.048).

연구모형의 모수 추정치 및 각 경로계수의 통계적 유의성은 그림 3에 제시하였다. 내재적 동기에서 친사회적 행동으로 가는 직접경로($\gamma=.03, ns$) 외의 모든 직접경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ps<.05$).

그릿과 친사회적 행동의 매개효과 검증

내재적 동기와 삶 만족도의 관계에서 그릿과 친사회적 행동의 단순매개효과와 이중매개효과를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부트스트래핑 방법을 이용해 원 자료(N=356)로부터 무선표집하여 생성된 10,000개의 자료표본을 통해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매개효과 검증결과는 표 2에 제시하였다.

검정 결과, 내재적 동기 · 친사회적 동기와 삶 만족도의 관계에서 그릿은 유의한 단순매개효과가 있었다. 내재적 동기에서 그릿의 매개효과는 95% 신뢰구간 .024~.054에, 친사회적 동기에서는 95% 신뢰구간 .031~.059에 모두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05 수준에서 유의미하였다. 이는 그릿이 동기의 유형에 상관없이 동기와 삶 만족도를 이어주는 변인임을 의미한다. 동기와 삶 만족도의 관계에서 친사회적 행동의 단순매개효과 경우, 동기 유형에 따라 다른 모습이 나타났다. 내재적 동기에서는 친사회적 행동의 매개효과가 95% 신뢰구간 -.002~.005에 0을 포함하여 유의하지 않았으나, 친사회적 동기에서는 95% 신뢰구간 .003~.020에 0을 포함하지 않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매개효과가 도출되었다. 그릿과 친사회적 행동의 이중매개효과 역시 유의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이는 그릿이 서로 다른 지향점을 통합하여, 친사회적 행동을 통해 삶 만족도를 예측하는 역할을 함을 시사한다.



* $p < .05$, *** $p < .001$. 주. 그림에 제시된 계수는 모두 표준화된 수치임.

그림 3. 연구모형의 경로계수와 요인부하량

표 2. 연구모형의 매개효과 검증결과

경로	비표준화	표준오차	표준화	95% 신뢰구간
내재적 동기→그릿→삶 만족도	0.043	0.009	0.039***	(.024, .054)
내재적 동기→친사회적 행동→삶 만족도	0.002	0.002	0.002	(-.002, .005)
친사회적 동기→그릿→삶 만족도	0.050	0.009	0.045***	(.031, .059)
친사회적 동기→친사회적 행동→삶 만족도	0.013	0.005	0.011*	(.003, .020)
내재적 동기→그릿→친사회적 행동→삶 만족도	0.002	0.005	0.002*	(.001, .004)
친사회적 동기→그릿→친사회적 행동→삶 만족도	0.002	0.001	0.002*	(.000, .004)

* $p < .05$, ** $p < .01$, *** $p < .001$

논 의

본 연구는 개인의 삶 만족도를 예측하는 요인으로 그릿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특히 사회구조 상 행복 요건 충족이 크게 어려워진 성인 초기 20대를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다.

본 연구는 행동과 그의 동기뿐만 아니라, 이를 연결하는 비인지적 특성인 그릿을 포함하여 20대가 만족감을 경험하는 경로를 확인해보았다.

그릿은 역경에도 불구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장기적으로 지속하는 특성이기 때문에

(Duckworth et al., 2007), 친밀성 획득이 어려운 사회적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발달 단계에 적합한 목표를 꾸준히 유지할 수 있다. 또한 친사회적 행동은 친밀한 관계 형성에 필요한 요소이기 때문에(Berndt, 2002; Dyer, 1986), 높은 그릿을 가진 사람들은 친밀성 달성 과정에서 더 많은 친사회적 행동을 보인다. 이렇게 달성된 발달과업으로 개인은 만족도를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그릿이 발달하는 초기 단계에 내재적 동기와 친사회적 동기가 존재한다(Duckworth, 2016). 즉, 본 연구는 내재적 · 친사회적 동기가 삶 만족도를 예측하는지 알아보고, 그 관계에서 그릿과 친사회적 행동의 매개효과가 있는지 검증해보았다. 연구 결과에 대한 요약은 다음과 같다.

가장 특징적인 결과는 그릿과 친사회적 행동이 두 동기와 삶 만족도를 이중매개하였다는 점이다. 지향성에 따라 친사회적 행동의 단순매개 효과가 유의하지 않았음을 고려하면 이는 더 의미 있는 결과로 해석된다. 친사회적 행동의 단순매개효과는 내재적 동기가 아닌 친사회적 동기에서만 유의했다. 그러나 그릿과 친사회적 행동의 이중매개효과를 살펴보면, 내재적 · 친사회적 동기 모두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그릿은 서로 다른 지향점을 통합하는 역할을 하는 변인이다. 개인마다 자신의 이득이나 타인의 이득을 신경 쓰는 정도는 상대적이지만,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는 목표를 추구하게 되면 개인의 지향점과 관계없이 친사회적 행동이 증가하게 된다.

이는 발달 과업이 친밀성인 초기 성인기의 특성으로 인한 결과일 수 있다. 즉 이 시기에는 타인과 깊은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한 목표인데(Erikson, 1963), 이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그릿의 효과가 발휘된다. 그릿이 높

은 사람들은 친밀성 달성을 어렵게 하는 사회적 조건으로 인해 보다 많은 노력을 요구하는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끈기를 보인다(Fleeson et al., 2014). 따라서 이들은 더 많은 친사회적 행동을 보이고, 의미 있는 사회적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발달 과업을 달성할 확률이 높아지며, 결과적으로 만족도가 증가한다.

친밀성 달성이 성인 초기에 전반적이고 암묵적으로 중요하게 여겨지긴 하지만, 개인의 명시적인 목표는 아닐 수 있다. 그릿은 학교, 가정 등 개인의 다양한 삶의 영역에 영향을 주는 영역-일반적인 변인이기도 하지만(Eskreis-Winkler, Duckworth, Shulman, & Beal, 2014), 개인마다 서로 다른 목표를 가진다는 점에서 특수성을 띄기도 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20대에 설정하는 대부분의 목표들은 달성을 위해서 친밀성을 필요로 한다. 예를 들어, 친사회적 행동은 또래와의 사회적, 학업적 활동을 증가시킴으로써 학업적인 자원을 더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Denham & Brown, 2010). 친사회적 행동은 학업 능력을 통제된 후에도 학교 성공을 유의하게 예측하였고(Wentzel, 1993), 조직 내 대인관계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도 한다(Borman & Motowidlo, 1993). 따라서 그릿이 높은 사람들이 각자의 목표 달성을 위해 수단적으로 친사회적 행동을 사용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다음으로, 내재적 · 친사회적 동기는 모두 삶 만족도에 유의한 직접효과가 있었다. 내재적 동기가 개인의 이득에, 친사회적 동기가 타인의 이득에 비교적 집중하는 동기라는 차이는 있지만, 두 변인 모두 스스로의 의지에 따라 행동하려는 자기결정성을 내포한다(Ryan & Deci, 2000). 이는 Deci와 Ryan(1985)이 자기결정성 이론을 기반으로 진행한 선행 연구에

서 자기결정성이 행복과 안녕감을 유의하게 예측하였다는 결과와 일치한다(Vansteenkiste, Ryan, & Deci, 2008). 또한, 내재적 동기는 쾌락 주의적 행복과, 친사회적 동기는 자기실현적 행복과 관련이 있다(Ryan & Deci, 2001). 두 유형은 모두 삶 만족도를 독자적으로 예측하기 때문에(Peterson, Park, & Seligman, 2005), 본 결과는 선행 연구와 일치한다.

단순매개효과의 검증에서 친사회적 행동은 친사회적 동기와 삶 만족도의 관계를 유의하게 매개하였으나, 내재적 동기에서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내재적 동기가 친사회적 행동을 직접 예측하지 못하였기 때문인데, 두 동기 모두 친사회적 행동을 예측할 것이라는 가설과 반대되는 결과이다. 이에 대해 Snyder 등(2000)은 친사회적 행동에 대한 내재적 동기의 역할이 없지는 않지만, 친사회적인 동기의 역할이 가장 크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상황에 따라 친사회적 행동은 내재적 동기에 의해 유발될 수도, 아닐 수도 있다는 연구 결과를 통해(De Dreu & Nauta, 2009), 내재적 동기가 상황적 요인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음을 유추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대상자인 20대의 경우 친사회적 행동을 수행하기 위한 상황적인 방해물이 많기 때문에 내재적 동기의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을 수 있다.

반면, 그릿은 두 동기 모두에서 유의한 단순매개효과를 보였다. 이는 그릿이 동기의 유형과 상관없이 삶 만족도를 예측함을 의미한다. 내재적 동기와 친사회적 동기가 모두 그릿 발달 단계와 관련 있는 변인이기 때문에, 각각 유의한 직접효과가 있었다. 그릿의 발달에 영향을 주는 흥미, 연습, 목적, 그리고 희망 중 내재적 동기는 흥미와, 친사회적 동기는 목적과 특히 연관이 깊다(Duckworth, 2016).

예를 들어, 즐거움 그 자체를 위해 집중하는 몰입(flow)은 흥미의 한 요소로, 더 오랜 지속과 성취를 예측한다(Carli, Delle Fave, & Massimini, 1988). 의미(meaning)를 추구하는 것은 목적과 관련있는데, 이 역시 그릿과 유의한 관계가 있다(Von Culin, Tsukayama, & Duckworth, 2014). 자연히 두 동기 모두 높은 그릿을 예측하고, 이는 삶 만족도로 이어진다. 그릿과 삶 만족도의 관계는 여러 선행 연구를 통해 유의하게 나타났으며(Salles, Cohen, & Mueller, 2014; Singh & Jha, 2008), 본 연구에서도 일관된 결과를 보인다. 즉, 내재적·친사회적 동기를 통해 그릿이 발달하고, 이것이 삶 만족도로 이어짐으로써 그릿의 매개효과가 설명될 수 있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한국 사회 문제로 인해 안녕감에 타격받기 쉬운 성인초기의 삶 만족도를 증진시킬 수 있는 개입 방안을 제안한다. 본 연구 결과는 사회적 관계가 20대의 안녕감에서 중요한 요소임을 시사하며, 내재적·친사회적 동기와 친사회적 행동을 매개하는 그릿의 역할을 강조한다. 자율적 동기를 가지기 어려운 사회적 환경은 청년들이 목표를 장기적으로 지속하기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삶 만족도를 저해하는 요소가 된다. 따라서 즐거움을 경험하거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다양한 기회 제공을 통해 자율적 동기를 증진시키고, 이것이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 사회적 자원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그릿의 역할을 확장시켰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릿을 대부분 학업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데 치중하였으나(이수란, 손영우, 2013; 이정림, 권대훈, 2016), 본 연구를 통해 그릿을 학업 관련 변인을 넘어서서 삶의 긍정적 요소와 연결시킬 수 있었다. 또

한 해외의 선행 연구에서 그릿은 학업 성적, 직업 유지, 행복 등 다양한 긍정적 결과와 연결되었으나(Eskreis-Winkler et al., 2014), 이들은 모두 개인에 국한하여 그릿의 효과를 설명하였다. 그릿이 친사회적 행동을 예측한 본 연구의 결과는 그릿이 개인 내적으로만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는 변인이 아니라, 타인을 도움으로써 타인과의 상생을 이끌어내는 변인임을 보여준다. 또한 이것이 다시 개인 내적인 삶 만족도로 이어지는 순환적 효과가 나타나 그릿의 역할을 확장시킬 수 있다. 이는 공동체적 삶 속 성숙한 시민의식 함양에 있어서 그릿이 자신과 타인 모두에게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첫 단추로서 작용한다.

셋째, Duckworth(2016)에서 제시된 그릿의 개념을 연구를 통해 직접 확인하였다. 아직 그릿에 대한 연구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그릿 개념 정립을 위한 작업도 진행 중인 상태다. 연구자들은 그릿 연구의 창시자 격인 Duckworth의 설명을 기반으로 그릿의 정의와 특징을 서술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이론적으로만 제시되고 실제 연구를 통해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많은데, 본 연구를 통해 일부 관계를 확인해볼 수 있었다. 자율적 동기가 그릿에 영향을 주는 변인임을 확인하였으며, 자율적 동기의 하위 유형인 내재적 동기와 친사회적 동기의 역할을 각각 확인하였다. 즉 ‘흥미’, ‘목적’과 그릿의 관계를 실제로 탐색해 보았으며, 내재적인 동기와 친사회적인 동기가 모두 높은 그릿을 예측할 것이라는 Duckworth(2016)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더불어 그릿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는 친사회적인 특성을 포함하는 변인임을 밝혀내었다. 선행 연구에서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예측한 삶 만족도와와의 관계도 다시 한 번 살펴보고,

그릿이 삶 만족도를 직접적으로도, 간접적으로도 예측하는 변인임을 증명하였다.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과 그에 따른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그릿의 하위 구인인 열정의 요인 부하량이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문화적 요소를 고려하여 그릿의 구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선행 연구에서 열정 구인은 문화에 따라 그릿의 하위 요인으로 나타나지 않기도 했다(Datu et al., 2016). 또한 여러 국가에서 Duckworth 등(2007)의 척도를 타당화한 결과가 다르게 나타났고, 집단주의 문화인 필리핀에서 그릿이 3개 요인으로 보고된 것을 고려하면 우리나라에서도 그릿의 하위 요인이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Datu et al., 2017; Schmidt, Fleckenstein, Retelsdorf, Eskreis-Winkler, & Möller, 2017). 본 연구에서도 3요인이 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나 Datu 등(2017)의 척도를 사용하였고, 실제로 자료 분석 과정에서 이 척도가 Duckworth 등(2007)의 원 척도를 번안한 이수란과 손영우(2013)의 척도에 비해 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필리핀과 우리나라 간에도 문화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릿의 구인이 우리나라에서는 또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한다. 추후 연구에서는 문화적 특성을 고려하여 그릿의 정의, 구인, 효과 등을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그릿에 대한 연구가 아직 초기 단계에 있기 때문에, 본 연구는 탐색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 설정한 내재적 · 친사회적 동기나 친사회적 행동도 비교적 단순화된 변인들이다. 내재적 동기와 친사회적 동기를 각각 Duckworth(2016)가 제안한 발달 단계 중 흥미와 목적과 연결 지었으나, 서로 완전히 부합하는 개념은 아니다.

친사회적 행동 역시 행복을 예측하는 핵심 요소인 사회적 관계를 고려하여 설정한 변인이지만, 아직까지는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추후에는 더 다양하고 복잡한 변인을 통해서 연구를 진행하고, 이를 통해 연구의 시사점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성인 초기, 그중에서도 20대만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이는 사회적으로 유사한 분위기를 경험하는 집단을 선정하려는 노력이었으나, 연령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기는 어려웠다. 본 연구의 결과는 친밀성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집단 특성에서 기인했을 가능성이 있다. 즉, 친사회적 행동이 친밀성이라는 개인적 이득을 가져오는 변인이기 때문에 친사회적 동기뿐만 아니라 내재적 동기에서도 유의한 이중매개 효과를 보였을 수 있다. 또한 그릿이 연령에 따라 발달하는 경향이 있고(Duckworth et al., 2007), 나이에 따라 그릿과 친사회적 행동의 관계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연구도 있는 만큼(Wenner & Randall, 2016), 다양한 발달 집단을 포함하여 연구를 진행하면 더욱 풍부한 결과를 얻을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김정은, 류영주, 최효선, 양수진 (2017. 11.) 한국판 삼원 그릿 척도(Triarchic Model of Grit Scale) 타당화 연구. 2017년 한국발달심리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포스터 발표, 서울.

박선의 (2016).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자녀 웰빙과의 구조적 관계- 행복감, 성장마인드셋, 그릿 및 희망의 영향. 박사학위논문,

한서대학교, 충남.

이수경 (2016). 성인 초기의 성장 마인드셋, 고정 마인드셋과 그릿(Grit)의 관계: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서울.

이수란, 손영우 (2013). 무엇이 뛰어난 학업성취를 예측하는가?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10(3), 349-366.

이정림, 권대훈 (2016). 통제소재, 마인드셋, 그릿, 학업성취 간의 구조적 관계 분석. 청소년학연구, 23(11), 245-264.

이혜원, 탁정화, 이미란 (2017). 예비유아교사의 그릿 군집유형에 따른 성격 5요인과 자기효능감의 차이. 유아교육연구, 37(3), 249-268.

장미애, 양난미 (2015). 대학생의 애착회피와 삶의 만족도의 관계: 회피-분산적 정서조절양식, 정서표현 양가성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6(2), 273-292.

장휘숙 (2009). 성인초기의 발달과업과 행복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2(1), 19-36.

정우희, 김혜원 (2017). 진로소명이 대학생들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24(2), 445-472.

통계청 (2017.09.13.). 「고용동향」.

한국지역정보개발원 (2016). 대한민국 신인류로 등장한 “나홀로족”. 지역정보화, 98(0), 118-119.

Aknin, L. B., Barrington-Leigh, C. P., Dunn, E. W., Helliwell, J. F., Burns, J., Biswas-Diener, R., ... & Norton, M. I. (2013). Prosocial spending and well-being: Cross-cultural evidence for a psychological universa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04(4), 635.

Aknin, L. B., Norton, M. I., & Dunn, E. W.

- (2009). From wealth to well-being? Money matters, but less than people think. *The Journal of positive psychology, 4*(6), 523-527.
- Akos, P., & Kretchmar, J. (2017). Investigating Grit at a Non-Cognitive Predictor of College Success. *The Review of Higher Education, 40*(2), 163-186.
- Batson, C. D. (1987). Prosocial motivation: Is it ever truly altruistic?.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20*, 65-122.
- Batson, C. D., Duncan, B. D., Ackerman, P., Buckley, T., & Birch, K. (1981). Is empathic emotion a source of altruistic motiv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0*(2), 290.
- Batson, C. D., & Oleson, K. C. (1991). *Current status of the empathy-altruism hypothesis*. Sage Publications.
- Batson, C. D., & Powell, A. A. (2003). *Altruism and prosocial behavior*. Handbook of psychology.
- Bennett, S., Banyard, V. L., & Garnhart, L. (2014). To act or not to act, that is the question? Barriers and facilitators of bystander intervention.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29*(3), 476-496.
- Berg, J. M., Grant, A. M., & Johnson, V. (2010). When callings are calling: Crafting work and leisure in pursuit of unanswered occupational callings. *Organization Science, 21*(5), 973-994.
- Berndt, T. J. (2002). Friendship quality and social development.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11*(1), 7-10.
- Binder M, Coad A (2010) An examination of the dynamics of well-being and life events using vector autoregressions. *Journal of Economic Behavior & Organization, 76*, 352 - 371.
- Borman, W. C., & Motowidlo, S. M. (1993). Expanding the criterion domain to include elements of contextual performance. *Personnel Selection in Organizations; San Francisco: Jossey-Bass*, 71.
- Browne, M. W., & Cudeck, R. (1993).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Sage focus editions, 154*, 136-136.
- Byrne, B. M. (2013).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ith LISREL, PRELIS, and SIMPLIS: Basic concepts, applications, and programming*. Psychology Press.
- Campbell, A., Converse, P. E., & Rodgers, W. L. (1976). *The quality of American life*. New York: Russell Sage.
- Cantor, N., & Sanderson, C. A. (2003). 12 Life Task Participation and Well-Being: The Importance of Taking Part in Daily Life. *Well-being: Foundations of hedonic psychology, 230*.
- Caprara, G. V., & Steca, P. (2005). Self - efficacy beliefs as determinants of prosocial behavior conducive to life satisfaction across ages.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24*(2), 191-217.
- Carli, M., Fave, A. D., & Massimini, F. (1988). The quality of experience in the flow channels: Comparison of Italian and US students. In M. Csikszentmihalyi & I. Csikszentmihalyi (Eds.), *Optimal Experience: Psychological studies of flow in consciousness* (pp. 288-306).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hanglek, A., & Palanukulwong, T. (2015). Motivation and Grit: Predictors of language

- learning achievement. *International Humanities, Social Sciences and Arts*, 8(4), 23-36.
- Crist-Houran, M. (1996). Efficacy of volunteerism for role-loss depression: a complement to Weinstein, et al. *Psychological reports*, 79(3), 736-738.
- Datu, J. A. D., Valdez, J. P. M., & King, R. B. (2016). Perseverance counts but consistency does not! Validating the short grit scale in a collectivist setting. *Current Psychology*, 35(1), 121-130.
- Datu, J. A. D., Yuen, M., & Chen, G. (2017).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Triarchic Model of Grit Scale (TMGS): Evidence from Filipino undergraduate student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14, 198-205.
- Deci, E. L., & Ryan, R. M. (1985). The general causality orientations scale: Self-determination in personality.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19(2), 109-134.
- Deci, E. L., & Ryan, R. M. (2008). Self-determination theory: A macrotheory of human motivation, development, and health. *Canadian psychology/Psychologie canadienne*, 49(3), 182.
- De Dreu, C. K., & Nauta, A. (2009). Self-interest and other-orientation in organizational behavior: implications for job performance, prosocial behavior, and personal initiative.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94(4), 913.
- De Neve, J. E., & Oswald, A. J. (2012). Estimating the influence of life satisfaction and positive affect on later income using sibling fixed effects.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109(49), 19953-19958.
- Denham, S. A., & Brown, C. (2010). "Plays nice with others": Social-emotional learning and academic success. *Early Education and Development*, 21(5), 652-680.
- Diener, E. (1984)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Bulletin* 95, 542-575.
- Diener, E., Emmons, R. A., Larsen, R. J., & Griffin, S. (1985).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9, 71-75.
- Diener, E., & Seligman, M. E. (2002). Very happy people. *Psychological science*, 13(1), 81-84.
- DiTella, R., MacCulloch, R., Oswald, A. J. (2001). Preferences over inflation and unemployment: Evidence from surveys of happiness.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91(1), 335-341.
- Duckworth, A. (2016). *Grit: The power of passion and perseverance*. Simon and Schuster.
- Duckworth, A., & Gross, J. J. (2014). Self-control and grit: Related but separable determinants of success.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23(5), 319-325.
- Duckworth, A. L., Peterson, C., Matthews, M. D., & Kelly, D. R. (2007). Grit: perseverance and passion for long-term goal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2(6), 1087.
- Duckworth, A. L., Quinn, P. D., & Seligman, M. E. (2009). Positive predictors of teacher effectiveness. *The Journal of Positive Psychology*, 4(6), 540-547.
- Dyer, W. G. (1986). *Cultural change in family firms*. Jossey-Bass.
- Eisenberg, N., Cumberland, A., Guthrie, I. K., Murphy, B. C., & Shepard, S. A. (2005). Age changes in prosocial responding and moral

- reasoning in adolescence and early adulthood.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15(3), 235-260.
- Erikson, E. H. (1963). *Childhood and Society*. New York: W. W. Norton.
- Eskreis-Winkler, L., Duckworth, A. L., Shulman, E. P., & Beal, S. (2014). The grit effect: Predicting retention in the military, the workplace, school and marriage. *Frontiers in psychology*, 5, 36.
- Ferguson, E., Farrell, K., & Lawrence, C. (2008). Blood donation is an act of benevolence rather than altruism. *Health Psychology*, 27(3), 327.
- Fischer P., Krueger J. I., Greitemeyer T., Vogrinic C., Kastenmüller A., Frey D., ... Kainbacher M. (2011). The bystander-effect: A meta-analytic review on bystander intervention in dangerous and non-dangerous emergencies. *Psychological Bulletin*, 137, 517-537.
- Fleeson, W., Furr, R. M., Jayawickreme, E., Meindl, P., & Helzer, E. G. (2014). Character: The Prospects for a Personality Based Perspective on Morality.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Compass*, 8(4), 178-191.
- Fowler, J. H., & Christakis, N. A. (2008). Dynamic spread of happiness in a large social network: longitudinal analysis over 20 years in the Framingham Heart Study. *Bmj*, 337, a2338.
- Gagné, M. (2003). The role of autonomy support and autonomy orientation in the engagement of prosocial behavior. *Motivation and Emotion*, 27, 199-223.
- Grant, A. M. (2008). Does intrinsic motivation fuel the prosocial fire? Motivational synergy in predicting persistence, performance, and productivity.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93(1), 48.
- Grant, A. M., & Berg, J. M. (2012). *Prosocial motivation at work: When, why, and how making a difference makes a difference*. Oxford University Press.
- Gundelach, P., & Kreiner, S. (2004). Happiness and life satisfaction in advanced European countries. *Cross-cultural research*, 38(4), 359-386.
- Havighurst, R. J. (1952). Social and psychological needs of the aging. *The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279(1), 11-17.
- Hillygus, D. S., Holbein, J. B., & Snell, S. (2016). The Nitty Gritty: The Unexplored Role of Grit and Perseverance in Voter Turnout. Retrieved from <https://ssrn.com/abstract=2675326>.
- Holbein, J. B., Hillygus, D. S., Gibson-Davis, C. M., Hill, D., & Lenard, M. A. (2016). True Grit: The Development of Students' Engagement in School, Community, and Democracy. Retrieved from <https://ssrn.com/abstract=2793274>.
- Hu, L. T., & Bentler, P. M. (1999).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6(1), 1-55.
- Jin, B., & Kim, J. (2017). Grit, Basic Needs Satisfaction, and Subjective Well-Being. *Journal of Individual Differences*, 38, 29-35.
- Kehr, H. M. (2004). Integrating implicit motives, explicit motives, and perceived abilities: The compensatory model of work motivation and

- volition.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9(3), 479-499.
- Kline, R. B. (2011).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3rd ed.)*.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Koestner, R., Otis, N., Powers, T. A., Pelletier, L., & Gagnon, H. (2008). Autonomous motivation, controlled motivation, and goal progress. *Journal of personality*, 76(5), 1201-1230.
- Lachapelle, Y., Wehmeyer, M. L., Haelewyck, M. C., Courbois, Y., Keith, K. D., Schalock, R., ... & Walsh, P. N. (2005). The relationship between quality of life and self-determination: an international study. *Journal of intellectual disability research*, 49(10), 740-744.
- Latané B., Nida S. (1981). Ten years of research on group size and helping. *Psychological Bulletin*, 89, 308-324.
- McKnight, P. E., & Kashdan, T. B. (2009). Purpose in life as a system that creates and sustains health and well-being: an integrative, testable theory. *Review of General Psychology*, 13(3), 242.
- Nielson, M. G., Padilla-Walker, L., & Holmes, E. K. (2017). How do men and women help? Validation of a multidimensional measure of prosocial behavior. *Journal of Adolescence*, 56, 91-106.
- Niemiec, C. P., & Ryan, R. M. (2009). Autonomy, competence, and relatedness in the classroom: Applying self-determination theory to educational practice. *School Field*, 7(2), 133-144.
- Pelletier, L. G., Fortier, M. S., Vallerand, R. J., & Brière, N. M. (2001). Associations among perceived autonomy support, forms of self-regulation, and persistence: A prospective study. *Motivation and emotion*, 25(4), 279-306.
- Penner, L. A., Dovidio, J. F., Piliavin, J. A., & Schroeder, D. A. (2005). Prosocial behavior: Multilevel perspectives.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6, 365-392.
- Pennings, S. M., Law, K. C., Green, B. A., & Anestis, M. D. (2015). The impact of gri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hopelessness and suicidality. *International Journal of Cognitive Therapy*, 8(2), 130-142.
- Peterson, C., Park, N., & Seligman, M. E. (2005). Orientations to happiness and life satisfaction: The full life versus the empty life.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6(1), 25-41.
- Piferi, R. L., Jobe, R. L., & Jones, W. H. (2006). Giving to others during national tragedy: The effects of altruistic and egoistic motivations on long-term giving.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23(1), 171-184.
- Ryan, R. M., & Connell, J. P. (1989). Perceived locus of causality and internalization: examining reasons for acting in two domai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5), 749.
- Ryan, R. M., & Deci, E. L. (2000). Self-determination theory and the facilitation of intrinsic motivation, social development, and well-being. *American Psychologist*, 55(1), 68.
- Ryan, R. M., & Deci, E. L. (2001). On happiness and human potentials: A review of research on hedonic and eudaimonic well-being.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2(1), 141-166.

- Ryan, R. M., Huta, V., & Deci, E. L. (2008). Living well: A self-determination theory perspective on eudaimonia.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9, 139-170.
- Salles, A., Cohen, G. L., & Mueller, C. M. (2014). The relationship between grit and resident well-being. *The American Journal of Surgery*, 207(2), 251-254.
- Scharneck, L. (2017). *The mediating effect of self-determined motivation in student-athlete perceptions of coaching behaviors and its effect on grit and mental toughness* (Master's dissertation). Illinois State University, Illinois, U.S.
- Schmidt, F. T., Fleckenstein, J., Retelsdorf, J., Eskreis-Winkler, L., & Möller, J. (2017). Measuring Grit. *European Journal of Psychological Assessment*.
- Silva, M. N., Markland, D., Carraça, E. V., Vieira, P. N., Coutinho, S. R., Minderico, C. S., ... & Teixeira, P. J. (2011). Exercise autonomous motivation predicts 3-yr weight loss in women. *Medicine & Science in Sports & Exercise*, 43(4), 728-737.
- Singh, K., & Jha, S. D. (2008). Positive and negative affect, and grit as predictors of happiness and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the Indian Academy of Applied Psychology*, 34(2), 40-45.
- Snyder, M., Clary, E. G., & Stukas, A. A. (2000). The functional approach to volunteerism. *Why we evaluate: Functions of attitudes*, 365-393.
- Stevens, J. P. (1992). *Applied Multivariate Statistics for the Social Sciences* (2nd edition). Hillsdale, NJ: Erlbaum.
- Suh, E. (1994). *Emotion norms, value, familiarity, and subjective well-being: Across-cultural examination*. Unpublished M.A Thesis, University of Illinois, Urbana-Champaign.
- Walker, C. O., Greene, B. A., & Mansell, R. A. (2006). Identification with academics, intrinsic/extrinsic motivation, and self-efficacy as predictors of cognitive engagement. *Learning and individual differences*, 16(1), 1-12.
- Weinstein, N., & Ryan, R. M. (2010). When helping helps: autonomous motivation for prosocial behavior and its influence on well-being for the helper and recipi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8(2), 222.
- Wenner, J. R., & Randall, B. A. (2016). Predictors of prosocial behavior: Differences in middle aged and older adult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01, 322-326.
- Wentzel, K. R. (1993). Does being good make the grade? Social behavior and academic competence in middle school.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5(2), 357.
- Wheeler, J. A., Gorey, K. M., & Greenblatt, B. (1998). The beneficial effects of volunteering for older volunteers and the people they serve: A meta-analysis.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47(1), 69-79.
- Vakil, R. H. (2014). *Running and Grit* (Capstone research project). Bryant University, Rhode Island, U.S.
- Vallerand, R. J., & Blssonnette, R. (1992). Intrinsic, extrinsic and amotivational styles as predictors of behavior: A prospective study. *Journal of personality*, 60(3), 599-620.
- Van Lange, P. A. (1999). The pursuit of joint outcomes and equality in outcomes: An

- integrative model of social value orient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7(2), 337.
- Vansteenkiste, M., Ryan, R., & Deci, E. (2008). Self-determination theory and the explanatory role of psychological needs in human well-being. In *Capabilities and happiness* (pp. 187-223). Oxford University Press.
- Veenhoven, R. (1991). Questions on happiness: Classical topic, modern answers, blind spots. In F. Argyle, M. Schwarz, & N. Strack (Eds.), *Subjective well-being: An interdisciplinary perspective* (pp. 7-26). Elmsford, NY: Pergamon.
- von Borgstede, C. and A. Biel (2002). "Pro-environmental behaviour: Situational barriers and concern for the good at stake." *Göteborg Psychological Reports*, 32(1).
- Von Culin, K. R., Tsukayama, E., & Duckworth, A. L. (2014). Unpacking grit: Motivational correlates of perseverance and passion for long-term goals. *The Journal of Positive Psychology*, 9(4), 306-312.
- 1차원고접수 : 2017. 10. 15.
수정원고접수 : 2017. 12. 01.
최종게재결정 : 2017. 12. 05.

On the Mediating Effects of Grit and Prosocial Behavior in the Relationship Between Intrinsic vs. Prosocial Motivation and Life Satisfaction

Young-Ju Ryu

Sujin Yang

Department of Psychology, Ewha Womans University

Currently, young adults in their twenties in Korea are experiencing the highest ever unemployment rate. This makes it hard for them to maintain social relationships, leading to lower life satisfaction. The current investigation explored the mediating effects of grit and prosocial behavior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wo types of motivation (intrinsic and prosocial motivation) and life satisfaction. A total of 356 adults in age range of 20-29 years participated in this study. While grit was a significant mediator regardless of motivation types, prosocial behavior was significant only for the relationship between prosocial motivation and life satisfaction. In the analyses of serial multiple mediation of grit and prosocial behavior, an indirect effect was observed. Grit underpinned the connection between motivation and behavior, which led to satisfaction. Across different developmental stages, intrinsic, prosocial motivation and prosocial behavior were suggested as unique variables that should be considered in improving young adults' life satisfaction. Moreover, grit enhances life satisfaction by increasing prosocial behavior among people in their twenties, regardless of motivation type.

Key words : *intrinsic motivation, prosocial motivation, grit, prosocial behavior, life satisfaction*